

대선정국 '수도권 규제완화' 붓물 균형발전 물거품 되나

기업 지방이전·혁신도시 등 차질 불보듯 13개 시도 서명·항의집회 등 강력 반발

17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린 법·제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비수도권 시·도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나 유력 후보들도 인구 절반인 수도권 유권자를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린 대표적인 정책 개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정비법' 개정안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문제, 12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일단 의결 정속수가 미달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건교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낙후지역 육성을 명목으로 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전체 위원 26명 중 9명만 참석해 통과가 보류됐다. 그러나 정권 말과 대선 정국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언제

든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살아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법안 제출 단계부터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지방에 유치할 기업 수도 극감하는 등 지방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6월 정부가 수도권 종합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정비발전지

구' 도입을 위한 4건의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을 발의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어 올해 6월 2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합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이 작성된 후 12일 건교위에 상정됐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도 복병이다. 경기도는 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도입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요구를 놓고 비수도권 시·도는 경기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하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상대책위를 가동,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의 항의 집회는 물론, 수도권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정당을 상대로 연말 대선공약에 지방 발전 육성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 지난 3일까지 전남도내에서만 모두 58만 4천여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 엑스포 "마지막 감동 선물하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13일부터 열리는 2012 여수박람회 유치기원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이 12일 인천공항에 입국,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BIE 대표단 속속 방한...盧대통령 지지 호소

오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

정부와 전남도·여수시 등 지자체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개최하는 제

2회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200여명의 BIE 회원국 대표단을 위해 경희궁에서 만찬을 베풀고 여수엑스포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시의성과 개최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도 심포지엄 참석자들을 초청, 여수박람회 지지 호소를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2일 한 총리 주재 만찬에 참석, BIE회원국 대표들에게 여수 유치지지를 당부하며 13일에는 개막식 참석에 이어 케이수물 팔라우 국무장관 등과 만나 득표활동을 벌인다.

오현섭 여수시장도 회원국 대표들에게 여수박람회 유치를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檢, 비엔날레 감독 선임 외압 추궁

한갑수 前이사장 소환...卞 사법처리 검토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부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의혹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검찰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대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신씨와 '가까운 사이'임이 드러난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의 책임자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특채를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일해온 성곡미술관이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의 책임자인 홍기삼 전 총장과 지난 7월 변 전 실장과 만나 신씨의 학력위조 문제를 논의한

장윤 스님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12일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불러 감독 선임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한 전 이사장을 통해 지난 7월 신씨가 허위학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신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던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신씨의 학위 위조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장윤 스님이 이를 문화관광부 관계자에게도 제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이날 "장윤스님이 7월 초 김장실 총무실장에게 신씨 학위관련 자료를 보내 진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CATS
2007. 9. 7-16 / 광주문화회관
문의: (062)220-0311 · 1530-0768

아베 日 총리 전격 퇴진

후임 아소 다로 유력

일본의 참의원 선거 참패 후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가 12일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관련기사 6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국정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정식 표명한 뒤 정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민당 집행부에 후임 총재를 조속히 선출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6일 전후 세대로는 처음



이자 최연소 총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내각 발족 후 약 1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아베 총리는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5일 유엔 총회에 새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총재 선거 준비를 서둘러 있다. 후임 총재이자 총리로는 지난달 27일 당정 개편에서 당 사령탑으로 발탁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간사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사임 이유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연장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에게 "여야 당수회담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후 당 안팎의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하며 2기 내각을 발족시켰으나 국고 부정수령 문제로 퇴진한 안도 다케히코(安藤武彦) 전 농수산상 문제 등 약제가 잇따르면서 구심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김선욱
"꿈의 무대, 10년 후엔 너의 무대가 될거야"

금호아시아나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꿉니다

해의유학한 번거롭지 않은 국내파 피아니스트 소년, 김선욱군. 그의 리즈곡재롱쿠르 우승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소중한 가능성을 두란한 재능으로 꽃피워겠습니다.

문의: (062)220-0311 · 1530-0768